

가족과 소풍 즐기듯... 여름 순천 정원에서 문화예술잔치

다음달 1~2일 '정원예술제'...순천예총, 지역예술인 참여 사업보고회 공연·아트페어·프리마켓 등 콘텐츠 다채...청소년 협서 공모전 진행도

순천시가 웹툰과 접목한 신비의 정원예술제 단생을 위한 본격 준비에 나섰다. 순천예총(회장 성정재)은 지난 6월 30일 지역예술인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순천예총 전 회장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사업 추진경과 및 사업

보고회를 시작으로 '2025 정원예술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5 정원예술제는 '정원으로 나온 예문(문화예술+애니·웹툰) in 순천'을 주제로 오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오전그린광장에서 25개 지역에

술단체 약 300여 명의 예술인이 참여한 가운데 정원문화에 문화콘텐츠를 결합한 지역대표 공연예술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특히, 이번 정원예술제는 정원에서 소풍을 즐기듯 가족이 함께하는 예술제로 애니메이션 요소를 가미한 문화콘텐츠를 특화한 다양한 장르의 복용합 예술 작품을 지역예술인이 제작하여 공연하고, 웹툰, 포토아트, 아트페어, 글리프, 프리마켓, 아티스트 스케이, 포토존 등 다양한 콘텐츠의 전시 및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또, 청소년 캐릭터 협서 공모전과 전남 학생무용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을 8월 2일 분부대에서 진행하며, 8월 1일 개막식에는 시민과 함께 즐기는 개막 퍼포먼스를 연출할 계획이다. 올해로 4회 차를 맞이하는 정원예술제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낸 지역예술인의 예술 활동 지원과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시작됐으며, 관습적 공연을 지양하는 등 지역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 순천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속사업으로 정착됐다.

순천예총 관계자는 "2025 정원예술제를 통해 지역예술인의 자생기반을 구축하고, 세대 간 문화 공감으로 지역 예술문화의 성장과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를 통한 citizen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예총은 8개 회원단체(국악, 미술, 사진작가, 음악, 연극, 연예예술인, 문인, 무용)로 구성됐으며, 현재 700여 명의 예술인이 지역과 동행하여 순천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고흥 특산물로 맥주 안주 만들기 최후 승자는?

푸드 챌린지 11일 최종 평가 5개팀 선정 마케팅·홍보 등 혜택

고흥 특산물과 수제맥주 안주의 환상적인 조화를 이룰 주인공은 누구일까? 고흥군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25 고흥 스페이스 푸드 챌린지'가 오는 11일 최종 평가를 앞두고 '최후의 승자'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챌린지는 고흥 특산물과 수제맥주를 활용한 안주맛조합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지역 자원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고,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1차 서류 심사에서는 총 24개팀 중 독창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12개팀이 선정됐다. 이들 팀은 지난 4일 'PPT 발표 컨설팅'에 고흥군이 제공하는 멘토링을 받았고 오는 10일까지 최종 발표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이후 11일 2차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5개팀이 선정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서류 심사에서 이상을 뛰어넘은



지난달 27일 시행된 '2025 고흥 스페이스 푸드 챌린지' 1차 서류 심사 모습.

창의적이고 실현가능성 높은 아이디어들이 많아 심사 어려움이 있었으며 "2차 평가에서는 창의성은 물론 고흥 특산물과 수제맥주 안주의 연계 가능성, 시장성, 사업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종 선정된 5개 팀에게는 고흥군 수제맥주 매장 입점 기회, 인테리어 지원, 브랜드 마케팅 과 홍보 등 창업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며, 이번 사업은 도시재생과 푸드 콘텐츠 산업이 결합된 새로운 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곡성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기업 최대 22억원·소상공인 5억원 대출 등 전액 보증

곡성군이 지난 2일부터 관내 중소기업 및 기업 가형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지원사업 대상기업 모집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의 저금리 대출과 우대보증 혜택을 부여한다. 곡성군은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농협은행 곡성군지부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곡성군 관내 중소기업들은 최대 22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원 규모의 농협은행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전액보증, 곡성군의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역 주력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 관내 중소기업이다. 특례보증 사업 신청은 곡성군청 도시경제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신청을 통해 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곡성군에서 발급한 추천서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신청 및 농협은행 곡성군지부에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곡성군청 도시경제과 투자유치팀(061-360-8722)으로 할 수 있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kwangju.co.kr

여수시, NH농협·광주은행 1·2급고 지정

2029년까지 4년간

여수시 자금 관리 제1급고는 NH농협은행, 제2급고는 광주은행으로 지정됐다. 여수시는 지난 1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5일 여수시 금고지정을

위에 관내 금융기관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가졌다. 시 금고 지정기간은 오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이며, 제1급고는 일반회계와 재난관리기금, 고흥사랑기금을 맡고 제2급고는 특별회계와 11개 기금을 담당하게 된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시 '생태계 복원' 섬진강·동천에 치어 방류

미꾸라지 등 10여 품종 20만 마리 포획 금지 등 별도 보호 조치 병행

순천시가 내수면 생태계 보전과 수산자원 증진을 위해 전남도와 함께 올해 총 10여 품종, 약 20만 마리의 건강한 어린 물고기를 섬진강과 동천 일대에 단계적으로 방류한다. 올해 6월 첫 방류 품종인 동남참게 1만7000마리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섬진강 및 동천 일원 등에 미꾸라지·동자개·붕어·메기·동남참게·쏘가리·자라 등 10여 품종, 20만 마리를 방류한다. 방류 이후에도 품종별로 포획 금지 기간 설정, 어구 제한, 불법어업 단속 등 필요한 수산자원 보호 조치 방안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자체적으로 2023-2024년 수산자원 회복이 시급한 하천과 강을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어린 물고기 10여 품종, 29만3000마리를 방류하고 친환경 수산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내수면 수산자원 증식과 친환경 생태계 보



지난 3일 내수면어촌계에서 황전면 비촌리 수역 일원에 어린 쏘가리를 방류하고 있다.

전에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수산 종자를 지속적으로 방류해 내수면 생태계를

안정화하고, 수산자원 보존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시, 지자체 건강증진 전략 우수기관

모바일 헬스케어 등 만성질환 개선 효과 입증 등 호평

여수시가 지난 3일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7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전략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의 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종합부문과 전략부문으로 나눠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만성질환 개선 효과를 입증하고 비대면 건

강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신체활동, 비만 예방, 영양, 금연 등 13개 분야를 통합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 실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결과"라며 "여수만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0월에 개최될 '해양 치유 어싱(Earthing) 대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보성군 껌백중앙경로당 '전국 모범'

군 유일 선정...체계적 프로그램·세대간 교류 등 높은 점수

보성 껌백중앙경로당이 보건복지부의 '2025년 전국 모범경로당'에 선정됐다. '전국 모범경로당'은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전국 각지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평가해 선정된다. '껌백중앙경로당'은 체계적인 운영과 자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세대 간 교류 활성화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껌백중앙경로당의 선정은 보성군 44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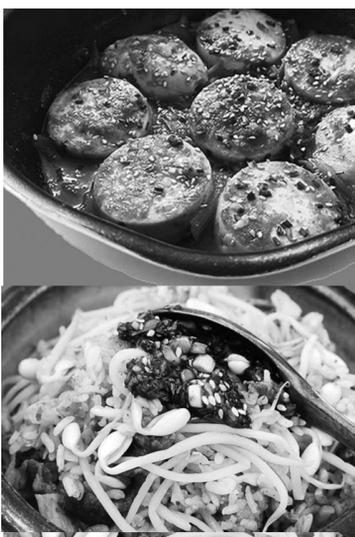
경로당 가운데 유일하며, 전남에서는 7곳이 선정됐다. 이에 보성군은 최근 껌백중앙경로당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수상의 기쁨을 나눴다. 현판식에는 선상규 대한노인회 보성군지회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1인 가구 '꿀맛 식단' 알려드려요

광양시가족센터 '신박한 밥상' 운영...간편식 조리 실습

'순두부조림, 컵누들볶고기, 콩나물밥, 치킨카레 등 나홀로 맛있는 식사 메뉴 요리법 알려드려요' 광양시가족센터가 이달부터 1인 가구의 식생활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이웃 간 따뜻한 상호 돌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신박한 밥상'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신박한 밥상'은 1인 가구 참여자들이 전자레인지 활용해 간편하면서도 건강한 식사를 직접 조리해 보는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자기관리 능력 향상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본 프로그램은 자조 모임 형태로 운영돼 참여자 간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참여자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지역 내

고립 위험이 큰 노년층 1인 가구에 전달하는 '나눔 활동'도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요리 실습을 넘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실천적 돌봄, 상호 돌봄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화 광양시가족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1인 가구의 건강관리와 자기돌봄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통해 돌봄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요리 교육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가족센터는 빠르게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감 예방과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인 발전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향후에는 '1인 가구 등록제'와 연계한 지역 내 1인 가구 맞춤형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가족센터가 이달부터 운영하는 '신박한 밥상' 프로그램의 메뉴인 순두부조림(위)과 콩나물밥.

고흥군, 주민 숙원 '소록경로당' 개소

고흥군이 지난 3일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고흥군의회 부의장과 의원, 기관단체장, 경로당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록경로당 개소식'을 개최했다. 소록경로당은 노인인구가 약 90%인 달하는 소록도에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생활 및 친목 도모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오랜 바람을 반영해 개소됐다. 연면적 184㎡ 규모로 남녀 이용 공간이 분리돼 있으며, '소록도 사랑의 집' 게스트하우스 내 마련됐다. 정규득 노인회장은 "소록경로당 개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함께 주신 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소록경로당 개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고흥군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소록도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 회원 간 화합을 다지고 모범이 되는 경로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축사를 통해 "그동안 어르신들이 불편하셨을 텐데, 새롭게 마련된 소록경로당에서 담소를 나누며, 어르신들의 든든한 섬터이자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